

광장으로 나온 극단주의 개신교 세력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성찰

-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이현균 (송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대학원생)
성신형 (송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계엄령의 신성화 - 인간의 도성과 신의 도성
- III. 부정선거 담론 - 영적 전쟁인가, 세속 권력투쟁인가
- IV. 국민저항권 발동 - 교회는 순례자 공동체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07>

• ABSTRACT •

A Christian Social Ethical Reflection on Extremist Protestant Factions in the Public Square: Concentrated on St. Augustine

Graduate Student, Lee, Hwonkyun (Soongsil University)
Associate Prof., Seong, Shinyung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Jeon Kwang-hoon phenomenon through the lens of Augustine's political theology. Jeon Kwang-hoon has been criticized for labeling South Korea as a 'Kingdom of God' and for sacralizing specific political factions and ideologies, thereby using the church as a tool for political mobilization. His actions include advocating for and sanctifying martial law, spreading conspiracy theories about election fraud following the 2020 election, and calling for the invoc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resistance. These claims subjugate the essence of faith to political ends and transform the church community into an instrument for secular power struggles. The study explores these issues by referencing Augustine's *City of God*, in which he distinguishes between the 'City of God' (*Civitas Dei*) and the 'Earthly City' (*Civitas terrena*). Augustine argued that the church, as a community of pilgrims on earth, should not be subordinate to secular authority but should instead bear witness to the justice and love of the Kingdom of God. He believed that true justice does not arise from human power nor institutions, and that political authority is merely a 'necessary evil' arising from sin; therefore, it cannot be regarded as theologically absolute.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public responsibilities, theological identity, and ethical standard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the Korean church must uphold today.

Key words: Jeon Kwang-hoon Phenomenon, Augustine, *City of God*, Political Ethics,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24년 12월 3일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30분 뒤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포고문을 발표하며 “포고령을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공포하였다.¹⁾ 과거 대한민국은 몇 차례 비상계엄을 통해 무력으로 시민을 제압해 왔고, 군의 정치 개입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상처를 남겼다. 이에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를 엄격히 제한하여 대통령도 아무 때나 계엄 선포를 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헌법 77조’를 통해 규정해 놓았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²⁾ 1979년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된 당시 상황은 전기도, 사변도 없던 그저 평화로운 하루였다. 윤석열은 연설에서 “중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알렸다.³⁾ 다수의 국민은 수용할 수 없는 황당한 이유였다. 결국, 자정이 지난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다.

당시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찬동하며 적극 지지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1) 임선웅, “윤석열 내란 6시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뉴스타파』 (2024. 12. 04), <https://newstapa.org/article/zT41L>

2)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비상계엄 관련 규정)

3) 임선웅, “윤석열 내란 6시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전광훈’이었다. 그는 계엄 당일 라이브 방송에서 “계엄령은 주사파, 개딸, 종북주의자, 국회에서 내란을 선동했던 이재명, 192석, 한동훈까지 바로 이들이 유도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은 대통령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함께 뜻을 합해 이번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엄령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말했다.⁴⁾ 그 후에도 계속된 전광훈의 발언은 단순한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아닌, 2차, 3차 계엄, 부정선거 음모론,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신학적 정당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런 전광훈의 주장은 기독교인의 단순한 사회참여 수준을 넘어 교회를 세속 정치와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전광훈의 주장은 권위주의와 종말론적 선민의식을 결합한 형태로 자신을 예언자로 정체화하면서, 그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동일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반공주의적 색깔론과 사회적 약사를 혐오하는 대중적 편협함에 편승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기독교) 세력’으로 규정하며 아스팔트의 전사가 되었다.⁵⁾ 이러한 주장은 한국 개신교 우파 일부와 극우 정치세력의 결합으로 강화되어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전광훈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신국론』에 제시된 정치 신학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질서와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도성의 의미와, 영적 전쟁의 의미,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전광훈이 주장한 교회론, 영적 전쟁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토대로 전광훈

4) JTBC 뉴스를, “경찰, 계엄 직전부터 폭동까지 ‘전광훈 발언들’ 전수분석,” *JTBC News*, (2025.02.10), <https://www.youtube.com/watch?v=YOz4qngBQC8>

5) 이상철, “전광훈을 잉태한 한국 개신교: 교회의 극우화와 전광훈,” 『기독교사상』 796(2025), 54-56.

주장을 비판하고, 오늘날 교회의 정치 참여가 지나야 할 신학적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조명하고자 한다.

『신국론』은 AD 413부터 13년 동안 기록된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을 기술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410년 코트족 알라리에 의해서 로마가 침략당하자, 로마인들은 그 원인은 4세기 말 로마의 전통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예수를 유일 종교로 숭배한 탓이라고 돌리면서 기독교를 맹비난하면서 모욕을 퍼부었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변호할 목적으로 이 책을 기술하였다. 또한, 이 시기 극단주의적 경향을 보인 도나투스파가 유행하였다. 도나투스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종파로 타락하거나 이전에 배교한 적이 있는 신도들을 엄격하게 배격하는 원칙을 주장하는 종파로, 그들은 성찬의 회개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죽음으로 가혹하게 다루었다. 이에 로마의 행정관이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였던 마르셀리누스가 스승에게 이 논쟁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교도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술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자 했다.⁶⁾ 오늘날의 현실도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전광훈 현상으로 야기된 기독교 내부의 위기, 즉 내적인 위기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을 통해 정치 신학적 관점을 전개하며, 이를 통해 세속 권력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인간 공동체의 본질을 신학적

6) 박의경, “로마제국과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와 정치질서 그리고 평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8/3(2010), 12.

으로 해석한다. 그는 인간의 역사와 정치 질서를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과 ‘지상(세속)의 도성(*Civitas Terrena*)’으로 설명하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정치 권력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⁷⁾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사상을 간추린다면 ‘은총에 의한 정치 생활의 구원’을 일관되게 암시한다.⁸⁾ 본 논문이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 도성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한 질서정연한 사랑(*ordo amoris*)’에 기초하며, 정의, 평화,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세속 도성은 자기를 향한 사랑과 교만, 권력욕을 기초로 하여 갈등과 분열을 내포한다. 두 도성의 분리는 인간의 내면적 동기에서 시작되며, 그 정치적 양상은 이 땅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나타난다.⁹⁾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치 권력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질서 유지의 도구로 보았다. 국가는 죄로 인해 발생한 필요악이며, 정의가 없는 왕국들(국가)은 강도떼와 흡사하다고 여겼다.¹⁰⁾ 세속 권력은 신학적으로 절대화될 수 없으며, 참된 정의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셋째,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종속되지 않는 ‘순례자 공동체(*peregrinans ecclesia*)’로 이해된다.¹¹⁾ 교회는 하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지니며, 세속 권력과의 융합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

7)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옮김, 『신국론 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4), 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번역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분도출판사(2004, 성염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2016, 조호연·김종흠 옮김), 아우름 (2018, 김광채 옮김), 동서문화사 (2016, 추인해·추적현 옮김) 등에서 번역출판하였다. 본 연구는 분도출판사 번역을 참고하였다.

8)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상』, 55-56.

9) 위의 책, 28-30.

10) 위의 책, 제4권 4장.

11) 위의 책, 66-67.

나라의 증언자로 존재해야 한다.¹²⁾ 따라서 교회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 정치 신학의 원리를 중심으로 전광훈의 정치 왜곡과 교권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II. 계엄령의 신성화 - 인간의 도성과 신의 도성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전광훈 목사는 곧바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지지하며 윤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방송에서 “계엄령은 주사파, 개딸, 종북주의자, 국회에서 내란을 선동했던 이재명, 192석, 한동훈까지 바로 이들이 유도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은 대통령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함께 뜻을 합해 이번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엄령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통치권자로서 도저히 국가와 행정부가, 국가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계엄령”이라며 “오늘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¹³⁾

전광훈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계엄령이 “하나님의 선물”¹⁴⁾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집회를 함께하던 극우 기독교 세력 더욱더 강력하게 결집하여 투쟁을 지속했다. 그의 발언 속에는 세속 권력

12)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옮김, 『신국론 중』 (서울: 분도출판사, 2004), 제19권 17장.
13) 전광훈, 긴급방송 “계엄령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2024,12,03) 유튜브.
14) 박인재, “전광훈 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 망언,” 「교회와 신앙」 (2024, 12, 06),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26>.

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신정정치적 관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세속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행위는 세속의 도성을 신성화하는 오류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 권력의 행사로 오해한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으로 분명하게 구분하며 세속 권력은 그 자체로 신학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한 질서 있는 사랑’에 기초하며 ‘정의’, ‘평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성된다. 반면 세속의 도성은 자기를 향한 ‘무질서한 사랑(amor sui)’, 곧 ‘교만’과 ‘권력욕’을 바탕으로 하며, 그 결과 ‘갈등’과 ‘분열’을 낳는다.¹⁵⁾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기에 교회가 세속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정치로 실현하겠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 없는 왕국이란 거대한 강도 떼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정의가 없는 국가를 비판했다.¹⁶⁾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은 헌법이 제시한 적절한 이유가 없는 비상계엄이기에 윤 대통령의 행동은 ‘정의 없는 국가’의 행동임이 자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정치가 존재하는 조건이 지상적 공동선에 대한 사랑,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되고 질서 잡힌 평화, 대신(對神)관계와 대인(對人)관계에서의 정의, 제도적 통일의 정치를 이루는 것이다.¹⁷⁾ 계엄에 관련된 윤 대통령에 행위는 어디에도 정치가 존재하는 조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정의가 없는 국가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을 죄로 인해 발생한 필요악으로 보며, 정의가 없는 국가는 단순한 도적 떼에 불과하다며 국가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던

15)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상』, 28-30.

16) 위의 책, 4장.

17) 위의 책, 56.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현실로 들어맞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더욱 세속 정치 권력을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시하거나 절대화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정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신학적 왜곡이다. 이 두 도성은 지상의 역사 속에서 섞여 있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렇기에 세속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다.

더불어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순례자 공동체로서, 세속 권력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과의 거리를 설명하면서 “비록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라도 정치가 완전한 국가의 건설을 이룩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¹⁸⁾ 전광훈의 계엄령 찬동 발언은 정치 권력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함으로써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정치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를 사회 분열의 도구로 오해하게 만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속의 도성이 자기를 향한 무질서한 사랑, 곧 교만과 권력욕을 바탕으로 하기에 갈등과 분열을 낳는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침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광훈이 중심이 된 기독교의 정치적 활동은 갈등과 분열을 낳는 극우 정치세력의 아이콘이 되었다. 전광훈은 정치적 활동 속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은 자신의 욕망 혹은 일부 기독교 내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었고, 반성경적인 발언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도 심심치 않게 해 왔다. 이번 계엄령에 대한 발언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왔다.¹⁹⁾ 그런데도, 신학적인 그리고 사안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판단 없이 무작정 수용으로 일관하던 맹목적 신앙

18) 위의 책, 66.

19) 박인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 망언.”

의 모습이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소리로 비치게 된 것이다. 그저 세속 국가를 마치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발언하며, 그것이 옳기에 싸워야 한다는 전광훈의 발언과 주장은 그가 평소에 하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과 같다. 그의 주장은 기독교 내의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틀린 목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신학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치 참여에 있어 어떠한 신학적 분별과 절제가 필요한지를 강하게 시사한다. 교회는 세속의 도성 속에서 살아가되, 결코 그 도성의 권력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사랑과 정의, 평화와 화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을 증언해야 한다.

III. 부정선거 담론 - 영적 전쟁인가, 세속 권력투쟁인가

전광훈은 대한민국 선거가 북한 김정은과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²⁰⁾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투표선관위”로 규정하며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보나 마나 이재명이 당선된다.”라고 했다.²¹⁾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²²⁾ 전광훈은 자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고 하며,²³⁾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사기”이며,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율이 70%에 가깝다며

20) 위의 글, “외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북한·중국이 대한민국 선거를,” *JTBC News*, (2025,01,06), <https://www.youtube.com/watch?v=CCSWKU4xCHA>.

21) 이호준, “전광훈을 바라보는 국회의 복잡미묘한 시선,” 『주간경향』 1627, (2025, 05), 20-22.

22) 위의 글, “집회 단상 오른 전광훈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이 나라는 이미,” *JTBC News*, (2025,01,03), https://www.youtube.com/watch?v=4-5D_XrN0uE.

23) 위의 글, “집회 단상 오른 전광훈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이 나라는 이미,”

3천만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²⁴⁾ 특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광훈은 이를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를 계엄령의 이유로 연결했다. 그 이후에도 “사전투표 폐지”, “윤 어게인”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집회를 이어갔다.²⁵⁾

이와 같은 전광훈의 발언과 행동은 정치적 사건을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찍었고, 이에 저항하는 자신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마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전광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동성애, 이슬람, 외국인 혐오, 주사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발언으로 갈등을 야기시켜왔다. 기독교 안에서도 논란의 중심이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승만’ 등으로 분열을 일삼아왔고, 극우 기독교인의 중심에 서서 ‘광화문파’라는 세력도 구축한 상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주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전광훈은 이를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신앙적 투쟁의 영역으로 정치를 가져와 신도들에게 영적 대결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이념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성도의 신앙이 판단 받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더 극단적으로 전광훈의 주장을 따라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도 벌어졌다.²⁶⁾

24) KBS 지금뉴스, “전광훈 “탄핵 결정은 사기...3천만 국민저항권 발동하자!,” *KBS News*, (2025,04,04), <https://www.youtube.com/watch?v=nNNtyf4lge0>.

25) 위의 글, “집회 단상 오른 전광훈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이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땅의 싸움은 하나님의 도성을 위한 영적 싸움이니, 세속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한 참된 영적 전쟁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수단은 정의와 평화, 겸손과 자비이지 결코 권력이나 폭력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의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세상 정치의 한계는 인간 내면 궁극적 과제인 질서와 평화를 세우는 일을 도외시키고 육의 관심에 집중하는 데에 있다.²⁷⁾ 따라서 교회가 세속 권력투쟁을 '영적 전쟁'으로 왜곡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자의 삶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란 악한 권세에 대한 도덕적 저항이지, 정치적 음모론에 기반한 세속 권력 탈취가 아니다. 하지만 전광훈은 선거 조작, 서버 확보 등을 주장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신앙을 세속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권력욕이다. 그의 주장에는 사랑도, 정의도, 질서도 보이지 않으며, 현실을 부정한 채, 근거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역사를 두 도성의 충돌로 보았지만, 그 충돌의 본질은 외적 투쟁이 아니라 내적 동기, 즉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 땅의 정치 체계는 불완전하고, 그 안에 있는 정의는 상대적이다. 그렇기에 세속의 불의한 현실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 규정하고, 반대 세력을 절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정신에 위배된다.²⁸⁾

26)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폭동을 선동하고, 배후에는 전광훈이 있을 것으로 많은 언론과 정치, 기자들이 추론하고 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27) 양명수,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정치의 의미와 한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2008), 141.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정신에 위배는 한국교회의 큰 위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IMF 전의 한국교회는 분리와 배제, 차이로 인한 차별이 그리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는 부자와 빈자, 노인과 아이들,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20대 남성과 여성들이 무난히 섞여 있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불편함이 없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포용이 교회의 모습이었다. IMF를 겪고, 정부의 변화와 코로나 등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부의 갈등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활발히 광화문에서 활동한 전광훈은 12·3 계엄 이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냈으며, 그렇게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극우 기독교 세력의 결집을 끌어냈다.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극우 기독교가 모든 것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광훈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다름의 영역’을 ‘갈등과 차별’, 더 나아가 ‘배제’로 끌어내 ‘영적 전쟁’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구심점으로 사용했다.²⁹⁾

전광훈의 부정선거 담론은 아우구스티누스 정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 전쟁’의 개념을 왜곡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태도는 세속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것이다. 교회는 권력 획득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싸우되, 복음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사라진 채 전광훈은 ‘영적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차별과 배제, 불법과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태도를 오염시켰다.

28) 『신국론 상』, 55~56.

29) 이상철, “전광훈을 잉태한 한국 개신교: 교회의 극우화와 전광훈,” 54-58.

IV. 국민저항권 발동 - 교회는 순례자 공동체

전광훈 목사는 12·3일 계엄령 이후 여러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서 계엄령 발동과 국민 저항권 행사를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개입을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선언하며, 특정 정치 권력의 결정과 행동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에 종교적 절대성을 부여하는 신정론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특정 정책이나 권력 행사를 비판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의무로 포장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그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사실에 대해 “실패가 아닌 성공이었다.”며, 만약 계엄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알겠다.”며, 계엄령 발동을 통해 정치적 대상을 구분하고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는 심지어 “UDT(해군 특전요원)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³⁰⁾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자신을 “광화문의 총사령관”이라고 칭하며 우리가 빨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야, 총살!”이라며 협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³¹⁾ 더 나아가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 권위를 갖고 있다.”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르쳐줬다고 발언하였다.³²⁾ 그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어떻게 8:0이 될

30) 김민주, “‘UDT로 계엄 한 번 더’...전광훈尹탄핵 반대 집회서 폭탄 발언,” 『매일경제』, (2025.02.20), https://mkbn.mk.co.kr/news/politics/11246350?utm_source=chatgpt.com.

31) 위의 글, “경찰, 계엄 직전부터 폭동까지 ‘전광훈 발언들’ 전수분석,” 『JIBC News』 (2025.02.10), <https://www.youtube.com/watch?v=YOz4qngBQC8>.

32) 위의 글, “경찰, 계엄 직전부터 폭동까지 ‘전광훈 발언들’ 전수분석”,

수 있느냐며 사기”로 규정하고, “3천만이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며 대규모 저항을 선동하였다.³³⁾ 심지어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오자.”³⁴⁾는 주장까지 하였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북한 가기를 원하는 자”라고 발언했다.³⁵⁾ 이는 극단적인 정치적 이분법을 종교적 권위와 결합한 사례로, 교회 공동체를 특정 정치 진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매우 위험한 신학적 왜곡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순례자 공동체(peregrinans ecclesia)’로 이해하였다. 그는 교회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혼합된 몸(corpus permixtum)’으로 보았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은 종말에야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세상의 폭력이나 권력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보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거류민)으로 이 세계 속에 살아간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윤리의 핵심은 사랑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신의 도성은 ‘향유’하고 인간의 도성은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됨이다.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향한 관심이다.³⁶⁾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두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언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폭력과 선동을 통한 발언만으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는 충돌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국가는 타락 이후 허용된 ‘필요악’이며, 그 목적은 질서와 평화의 유지다.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 떤에 불과하며, 어

33) KBS 지금뉴스, “전광훈 “탄핵 결정은 사기...3천만 국민저항권 발동하자!,” *KBS News*, (2025.04.04), <https://www.youtube.com/watch?v=rNNtyf4lge0>.

34) 위의 글, ““서부지법 가자”외쳤던 전광훈, 오늘도 ‘부정선거’ 선동 이어가,” *JTBC News*, (2025.01.19), <https://www.youtube.com/watch?v=7xaYakoOTMU>

35) KBS 지금뉴스, “전광훈 “탄핵 결정은 사기...3천만 국민저항권 발동하자!”.

36) 문시영,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41 (2018), 87-91.

면 세속 권력도 신정화될 수 없다.³⁷⁾ 따라서 전광훈이 말하는 것처럼 계엄령의 반복적 요청이나, 국민저항권을 통한 무력 저항을 종교적 신념처럼 포장하는 것은 외려 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반기독교적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전광훈의 주장은 교회를 군사·정치 권력과 결합하는 폭력적 신정 체계의 환상을 보여주며 끊임없는 권력욕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존재이다. 전광훈의 주장은 교회를 정치의 방패로 삼고, 성도를 영적 전사로 호명하면서 복음을 정치적 무기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태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한 겸손과 자기 비움,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분별된 거리라는 교회의 윤리적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렇게 정면으로 대치된 행동 등을 일삼고 있는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 세력은 누구라도 편안하게 다가와야 하는 기독교의 가치를 폄훼하여 누구도 편하게 바라볼 수 없는, 불편함의 자리에 서게 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겸손과 자기 비움, 정치로부터의 분별된 거리를 원하며 요구하지만, 전광훈을 비롯한 근본주의 극우 기독교의 대응과 반응은 교만과 탐욕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광훈의 반복적인 계엄 요구와 국민저항권 발동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교회의 본질인 ‘순례자 공동체’ 정체성을 훼손한다. 반복적인 계엄과 혹은 국민저항권 발동을 통해 전광훈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잡은 자와 하나 되는 결과일 것이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확률이 적고, 실제로 친위 쿠데타로 권력을 유지하는 나라들은 독재(장기집권)를 하게 된

37) 남성현, “국가는 강도 때문이 필요악인가-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국가론,” 『신학사상』 181(2018), 266-270.

다. 독재국가는 결코 순례자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질서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세속의 도성은 결국 사라진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전광훈의 주장은 독재국가로 가는 것을 찬성하는 발언으로 그 권력을 움켜쥐는 자와 한 몸이 되려는 현상이다. 만약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고 무장하여 독재국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안에서 존속하는 교회는 순례자 공동체는 될 수 없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교회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여야 한다. 세속 권력과의 결탁, 정치 권력의 신성화, 그리고 폭력적 저항의 정당화는 하나님의 도성뿐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비전을 왜곡하고, 복음을 가리는 일이다.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전광훈의 세 가지 주요 주장 ‘계엄령의 신성화’, ‘부정선거담론’, ‘국민저항권 발동’이 한국 사회와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대응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사상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도성에서 신의 도성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는 순례자 공동체로 이 세계 속에 존재한다. 권력과 멀리서 권력에 저항하는 ‘영적 전쟁’은 평화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교회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나그네 공동체이다. 이러한 사회윤리적 토대를 세움으로 전광훈 현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본 연구는 고찰하였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 권력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것이 곧 교회의 정치적 종속이나 신정 통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나, 권력욕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공동선을 위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되, 항상 겸손히 자기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의 현실은 당연하게 한국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전광훈의 현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한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사이의 구별을 무시하고, 권력의 도구로 신앙을 사용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국교회는 다시금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을 구현하는 사도적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두 도성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세속 권력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영적 전쟁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교회가 순례자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37~4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네 이웃(타자)을 사랑하라고 명확히 기록하며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약자의 편에 설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기에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신앙. 더불어 살되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자리가 기독교인의 자리이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질서정연한 사랑’에 기초하며, 정의, 평화,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김민주. ““UDT로 계엄 한 번 더”…전광훈 尹탄핵 반대 집회서 폭탄 발언.” 『매일경제』 2025.02.20. https://mkbn.mk.co.kr/news/politics/11246350?utm_source=chatgpt.com
- 남성현. “국가는 강도 폐인이 필요악인가-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국가론.” 『신학사상』 181(2018), 257-287.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 문시영.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41(2018), 71-100.
- 박의경. “로마제국과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와 정치질서 그리고 평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8/3(2010), 7-30.
- 박인재, “전광훈 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 망언.” 『교회와 신앙』 2024.12.06.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26>.
-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옮김, 『신국론 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4.
- _____. 『신국론 중』, 서울: 분도출판사, 2004.
- 양명수.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정치의 의미와 한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8), 133-157.
- 이상철. “전광훈을 잉태한 한국 개신교: 교회의 극우화와 전광훈.” 『기독교사상』 796(2025 04), 51-69.
- 이호준. “전광훈을 바라보는 국힘의 복잡미묘한 시선.” 『주간경향』 1627(2025), 20-22.
- 임선웅. ““윤석열 내란 6시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뉴스타파』 2024.12.04. <https://newstapa.org/article/zT41L>.
- 전광훈. 긴급방송 “계엄령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유튜브, 2024.12.03
- JTBC 뉴스룸. “경찰, 계엄 직전부터 폭동까지 ‘전광훈 발언들’ 전수분석.” 『JTBC News』, 2025.02.10. <https://www.youtube.com/watch?v=YOz4qngBQC8>
- JTBC 뉴스룸. “외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북한·중국이 대한민국 선거를.” 『JTBC

- News*, 2025.01.06. <https://www.youtube.com/watch?v=CCSWKU4xCHA>
JTBC 뉴스룸. “집회 단상 오른 전광훈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이 나라는 이미.”
- JTBC News*, 2025.01.03. https://www.youtube.com/watch?v=4-5D_XrN0uE
JTBC 뉴스룸. ““서부지법 가자” 외쳤던 전광훈, 오늘도 ‘부정선거’ 선동 이어가.”
- JTBC News*, 2025.01.19. <https://www.youtube.com/watch?v=7xaYakoOTMU>
KBS 지금뉴스. “전광훈 “탄핵 결정은 사기…3천만 국민저항권 발동하자!” *KBS News*, 2025.04.04. <https://www.youtube.com/watch?v=rNNtyf4lge0>

논문투고일: 2025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신학을 중심으로, 전광훈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전광훈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이념을 신앙화하여, 계엄령 정당화 및 신성화,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담론 유포, 국민저항권 발동 요구 등을 주장하며 교회를 정치 동원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신앙의 본질을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세속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으로 구분하며, 교회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 공동체로서 세속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증언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된 정의는 인간 권력이나 제도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정치 권력은 죄로 인한 필요악일 뿐, 신학적으로 절대화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신학에 근거하여 전광훈의 교회론과 정치 행위의 문제점을 밝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과 신학적 정체성, 정치 참여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주제어: 전광훈 현상,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정치윤리, 기독교사회윤리
